



## 2세션 “북핵문제의 현황과 한반도 통일 전망” 토론편

백우열  
연세대 교수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가지 접근 방법의 필요성 환기. 항상 정부, 정책계와 학계에서는 몇몇 핵심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변수들에 대해 파편적으로 자의적으로 접근함. 그러나 어떻게 이 구조와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가, 이에 대한 적실한 분석과 이해가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들을 야기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의미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연계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상관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 한반도의 두 국가와 핵심당사국들로 구성된 ‘사회’ 조직의 구조는 무엇인가?
  - 2020년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사국들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정세의 변화가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어떤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가, 아니면 기존의 구조에서 진자 운동을 반복하는가?
  - 여러 변수들의 미시적인 변화와 유지에 대한 모든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에서. 핵심 국가/체제, 시장, 사회 행위자의 세밀한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찾아야 함
  - 북핵과 통일 문제에 있어 북한의 김정은 권위주의(개인독재형 중심-일당독재형 보완 유형) 정권이 원하는 것으로 통합된 입장은 무엇인가? 달리 접근하여 북한 체제의 김정은 가족, 지배연합엘리트, (신흥자본엘리트) 그리고 일반 대중(농민/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상이한가?
  - 세계 전략적 수준에서 북핵, 북한, 그리고 통일 문제 접근. 누가 또는 어떤 국가와 그들의 국내행위자가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되었을 수도 있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 예를 들어 한국과 한국의 국내행위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 왜 한국은 북한과 통일해야 하나? 기존의 세 가지 논의 (1) 군사안보 위협 제거 (2) 경제적 통합 이득 (3) 민족주의적 성취 (4) 이산가족 등 humanitarian 목적. 이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 4가지 편익을 한국과 북한의 다양한 엘리트, 시민계층들이 얼마나 원하는가?
- 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구조는 이 두 국제정치적 문제에 있어 상당히 명확해졌음. 전 박근혜 정권의 친중->친미 전략과 싸드 갈등/제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양국 간의 전략적 접근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줌.
  -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 중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중국은 한국 주도의 (또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원하는가? 로 이어지는 전략적 논리의 연쇄를 고려할 수 있음.
- 중국과 한국의 힘의 비대칭성 (power asymmetry)에 대한 인지와 이 구조 속에서의 두 문제에 대한 이해 필요. 여기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강화로 국제 수준의 정치, 경제, 기술, 체제적 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 새로운 구조적 변수의 시작? 한국의 신남방정책 본격화와 공고화의 의의. 한국은 의도하였건

아니건 Big boys' game에 들어가는 외교 전략상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함. 이제 흔히들 이야기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관됨.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변수의 등장이 어떻게 북핵, 북한, 통일 문제의 구조와 각각의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 고려도 필요.

- 결국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함께 또는 따로) 다루는 것은 모든 분석 수준에서의 구조들과 행위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이것을 한국 정부와 한국 행위자들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 행위자들의 전략과 정책 결정과 실행은 부분적 이해들에 기반한 ‘신념’, ‘지향성’ 또는 어떤 종류의 ‘Wishful Thinking’에 따라 전개될 것임. 이는 북한과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유사함.

- **토론자:** 백우열\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미국 UCLA 에서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을 공부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와 성균중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칭화대학교, 중국사회과학원, University of Hong Kong 등에서 연구원으로, 외교부 국정과제 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학술적-정책적 연구 분야는 글로벌 전략과 국내-국제정치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안보경제, 정치경제, 국가사회, 독재/권위주의, 소프트-하드-샤프파워와 공공외교 등이다. 또한 사물정치론(Politics of Things)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요 저작은 The China Quarterl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Moder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The Pacific Review, The Pacific Affairs, Asia Europe Journal, 한국정치학회보와 다수의 정책 저널과 편집본에 게재되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